

“2004년 국제유가 폭락할 수 있다”

OPEC 석유동향 보고서 전망 ... 24일 각료회담에서 수급문제 협의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라크의 석유 수출이 본격 회복되고 OPEC 역외 산유국들의 공급량도 늘어남에 따라 2004년에 국제유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OPEC은 빈 소재 사무국에서 현지시각으로 8월19일 공개한 월간 석유동향 보고서에서 세계 석유 수요가 2004년 1일 7925만배럴로 2003년보다 116만배럴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제유가 폭락을 내다봤다.

보고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할 때 2004년에 이라크의 석유 수출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돼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OPEC 역외 산유국들의 생산도 1일 125만배럴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요 산유국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4년 국제유가가 급락할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OPEC은 7월에 열린 각료회담에서 이라크 석유 수출이 사보타주 등으로 예상보다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산유 쿼터를 유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OPEC은 당시 2003년 안에 산유량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라크의 석유 수출은 7월 기준으로 1일 약 64만배럴에 불과했다. 이라크 전후 복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 수출을 2004년까지 150만배럴로 복구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앞서 OPEC은 중국, 중동 및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권 국가들의 성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2003년 전세계의 석유 수요가 1일 7809만배럴로 2002년보다 113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6개 주요 석유 소비국을 대변하는 국제에너지기구(IEA)도 8월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3년 전세계 석유 수요가 1일 111만배럴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OPEC은 2005년 전세계의 석유 생산이 1일 8730만배럴까지 늘어나 예상 수요인 8000만배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OPEC은 8월24일 빈에서 각료회담을 열고 석유 수급문제를 협의하며, 이 회동에서 새로 발표된 석유동향 보고서가 중점 점검된다.

OPEC 2위 산유국인 이란 측은 국제유가가 4월 이후 20% 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OPEC이 산유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에 대해 가격상승이 수급상의 근본적인 차질 때문이기보다는 이라크 소요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OPEC은 역내 바스켓유 가격이 배럴당 22-28달러대를 벗어나 일정기간 이어지면 산유량을 1일 50만배럴 자동적으로 증·감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기준에 의해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다.

OPEC 바스켓유 가격은 시장 개장일 기준으로 최근 12일 동안 배럴당 28달러를 계속 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21>